



헤어살롱, 부정맥을 만나다.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김 O 승

부정맥 관련 의료분야산업에 15년 넘게 종사해온 마케팅 전문가로서, 나는 남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냐고 물어오면 대답하기 꺼리는 사람 중 하나였다. 부정맥에 대해서 많은 분이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컴퓨터 장비들과 치료재료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걸 듣는다는 건 듣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정맥과 관련된 업무를 해오면서, 환자분들을 병원 외에서는 만나기 힘든 게 사실이었지만, 최근 들어 부정맥 증상을 가진 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하게 되었다. 10년 넘게 방문해오던 나의 '*최애 헤어숍'에서도 말이다.

(*최애 : 최고로 애용하는)

우연히 알게 된 부정맥

내가 심장 관련한 분야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 원장님이 헤어 커트를 마치고 결제할 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 제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정신 차리고 나면 바닥에도 쓰러져 있더라고요."

"네에? 아이고 저런.. 병원은 가보셨나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어요. 처음엔 약을 줘서 이걸로 먹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또 쓰러져있는 거예요"

약봉지를 보여주며 애써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원장님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표정은 마치 영화 속에서 '낯선 외계인을 만난 지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신은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심장이 뭘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맥박이 빨라지시나요?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부정맥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말하는데, 정상 속도보다 빠른 빈맥(분당 100회 이상의 심장박동수) 또는 느린 서맥(분당 60회 이하의 심장박동 수)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뉘 볼 수 있다.

전문의는 아니지만, 나는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부정맥의 종류를 진단하기 위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증상들을 들어보고 경험상 'tachy-brady syndrome (빈맥과 서맥이 함께 발현되는 부정맥)'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부정맥은 일차적으로 빈맥은 심장 내에서 부정맥을 유발하는 특정 부위를 찾아서 3차원 영상 장비와 고주파 열에너지를 통해 병변(병을 유발하는 부위)을 치료하고, 서맥은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여 정상 박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는 가까운 병원 몇 군대를 추천해드렸고, 원장님은 곧장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시술 일자를 잡았다.

병원 방문 후, 원장님의 병명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tachy-brady syndrome 이었고,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한다. 두 가지 부정맥 증상 중 하나인 빈맥은 고주파 열에너지를 치료하고, 몇 개월 뒤 서맥은 심장박동기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조심하며 지내게 된 상황에서 부정맥 치료를 받는 동안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 일이 있고난 뒤, 헤어숍은 문을 닫았고 나는 그 뒤로 다른 미용실을 알아보느라 애를 먹었다. 그때 원장님과 대화한 날이 헤어숍이 폐업을 일주일 앞둔 날이자 나의 '최애 헤어숍' 마지막 방문일이 되었다. 원장님은 마지막 인사 겸 대화를 나누다가 본인의 상황을 알리게 된 것이었다. 곁에는 직원분들이 원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나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직원 중 나의 헤어 커트를 해주시던 남자 실장님이 헤어숍 원장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부정맥이 연결해 준 인연으로 다른 장소에서 실장님의 커트를 받을 수 있었다. 실장님에게 헤어 커트를 받을 때면, 종종 어머니이기도 한 원장님의 안부를 묻곤 했다. 간혹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지만, 예전처럼 실신하는 일은 없어 더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단다. 그 후로 원장님과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실장님과는 친분이 생겨 식사 자리를 갖곤 한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건강을 안부처럼 묻는 것이 대화 속 주제 중 하나였지만, 그런 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할 만큼 친해졌다.

10년 넘게 방문했던 최애 헤어숍을 생각하면 썩썩이 쌓인 추억에 가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한다. 참 별일이다. '미용실 하나 없어진 거에 이런 감정까지야...'생각할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본다.





‘폐업을 앞둔 당시, 그런 대화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찔하기만 하다. 부정맥이라는 존재도 인식을 못한 채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찾는데 작은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당시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드린다.

헤어살롱에서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원장님은 부정맥을 만났고, 이제는 떠나보냈다.

“헤어살롱, 부정맥을 보내다. 아듀(Adieu)”

